

## 8.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

(창1:24~31)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온다.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를 만드셨을 때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나왔고 동물을 만드셨을 때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있었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도 역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은 누구든지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지만 실재는 하나다. 소유가 다를 뿐이지 존재는 하나다.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러하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범죄 했다고 하는가? 왜 죄의 전가, 죄의 유전이라는 말을 하는가? 그것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불에 타면 죽는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이다.

로마서를 읽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롬5:19).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먹은 일도 없다. 아담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가 되는가.’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이다. 동산에서의 원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행위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행위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된다. 행위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많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억울할 것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쓰여 있느냐?”고 할 것이다. 나도 옛날에 이것이 문제였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백지장처럼 깨끗하지 않고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뭘지도 모르고 울고불고 회개한다. 왜 그런가? 자기가 잘못된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

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 문제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살던 주인공은 교회에 나가면서 안정을 찾게 되었고 믿음이 깊어져서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감옥에 찾아간다. 그런데 그 범인은 미소를 짓고 맞이하면서 자기는 진작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 주인공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갔는데 범인은 반성은커녕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나는 진즉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뭘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겨도 사람이고 저렇게 생겨도 사람이다. 흑인도 사람이고 백인도 사람이다. 나는 피부가 흑인과 다르지만 흑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흑인은 백인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백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담이 흑인이었겠는가 백인이었겠는가? 만일 아담이 백인이었다면 흑인은 죄가 없고 아담이 흑인이었다면 백인은 아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포함된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다. 한 사람의 범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포함되는 것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조각가가 큰 나무토막을 갖다 놓고 조각을 시작하는데 조각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모른다. 풀만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가 뛰는 놈도 나오고 나는 놈도 나오기는 놈도 나오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온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동안에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그 속에 전에 있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속에는 별것이 다 있다. 만유가 포함되어 있다. 호랑이도 포함되고 사자도 포함되고 뱀도 포함되고 늑대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묘한 동물인 것이 어느 때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늑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개는 별짓을 해도 사자같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은 사자같이 될 수 있다.

표정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표정은 그 사람 자신이다.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든 찡그린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웃고 기쁜 체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만능 배우처럼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 옛날에는 인물이 잘난 사람만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배우로 유명해지려면 만능배우라야 한다. 무슨 배역을 맡아도 해낼 수 있어야 되지 깡패 역을 맡겨 놓았는데 어린양 노릇을 하고 있으면 안된다.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표정이 변한다.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없다. 다른 데는 옷으로 가리면 되지만 얼굴은 가릴 수 없다. 관상을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 많은 통계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거나 저렇게 생긴 사람은 팔자가 저렇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다. 사람은 속에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만유를 포함하고 지어진 것이다.

번성하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산에 있는 사자는 내가 다스리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자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내 것이므로 사자 모습을 할 수도 있고 토끼 모습을 할 수도 있다. “나는 못참아.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만 못참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안할 수도 있다. 욕을 막 하는 사람이 “나는 욕을 안할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욕을 하는 것이지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안듣기도 하는 것이다.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의 말을 절대로 안듣는다. 구자길 형제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으면 지금은 잘 먹고 잘살 것이다. 그런데 누가 퇴직금을 투자하면 엄청나게 불러 준다고 피었던 것 같다. 순진한 이 형제는 그 말에 속아서 연금의 반을 투자했던 것이다. 그나마 반이라도 남겨 놓았으니 다행이지만 돈을 투자하라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다. 투자를 주식에 하면 회사라도 있지만 그 사람은 회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해 준다고 피어서 우리 교회에 속은 사람이 몇 사람 된다. 나중에 구자길 형제에게 의논이라도 하지 어떻게 혼자 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의논하면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안했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남에게 물어 보지 않는다. 더구나 나에게 물어 보았으면 분명히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하라고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못하게 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못말린다. 구자길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말릴 수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집착하면 안되는데 마음대로 안된다. 자기 것이니 자기가 다스리면 되고 내 맘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는 것이다. 불교 방송을 들어 보면 여러 종파에서 여러 스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도 다 같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모든 불교가 같다. 참선을 하는 것도, 염불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되는지 몰라도 일반 신도들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옛날에 금강경 독송회에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걸으로 볼 때는 점잖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갓 결혼한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이었다. 금강경을 백 날 읽어도 소용없다. 단지 '나는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다. 나는 염불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남이 싫다고 하는 늑대 얼굴을 왜 하는가? 남이 싫다고 하면 안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왜 계속 하는가? 그 이유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취했다. 지식을 취하고 능력을 취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취했다. 그러니 그것들이 다스려지겠는가?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람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물은 지배받을 만한 데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못다스리는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고 싶다.'며 탄식한다. 만물이 사람을 보고 '저들을 우리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만 못한 것들에게 복종하려니 억울하다.'며 탄식한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은 소유 때문에 꼼짝 못한다. 소유가 없어서 문제인 줄 생각하지만 소유가 많아서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빈곤은 예외지만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문제가 된다. 아예 소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유 때문에 사람은 무거운 짐에 눌러 있는 것이다. 마치 너무 옷을 많이 입어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식

이다. 옷을 많이 입으면 따뜻하기는 해도 걸을 수가 없다.

요즘은 옷이 좋고 가볍지만 옛날에는 목화솜을 두껍게 넣어서 옷이 무거웠다. 나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람이 심하니까 솜을 넣어서 외투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을 입으면 한 짐이다. 춥다고 더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난다. 아버님은 나이도 많고 날도 추우니까 솜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솜을 넣은 두루마기를 입으셨다. 몸도 약한 분이 그렇게 입으니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그래도 추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입어야 했다. 가벼운 외투를 입을 때마다 아버님이 겨우내 그런 옷을 입고 사셨는데 그때 이런 옷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서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소유를 관리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돈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지 다스리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무조건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이 많다.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면 늘 행사를 했다. 시청 광장에서 시작했는데 그 행사를 구경하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나도 한 번 갔다가 군중 속에 끼어서 큰일날 뻔했다.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절대로 안에 있으면 안된다. 행사가 끝나서 흩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떠밀려 다녀야 했다. 나중에 보니 그 광장에 별것이 다 떨어져 있었다. 반지도 떨어져 있고 목걸이도 떨어져 있었다. 좋은 시계를 차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해도 쫓아갈 수 없다. 군중이 많이 모이면 무섭다. 부산역에서 무서운 사건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꺼번에 내려오다가 앞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위로 계속 덮쳐서 몇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뒤에서 밀어버리면 마음대로 못한다. 사람이 많은 데는 절대로 안에 들어있으면 안된다. 빨리 피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돈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서 못갖는 것이다. 노름판에서 기술만 있으면 돈을 따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돈을 따도 힘이 없으면 못갖고 나온다. 어떤 사람이 파친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지 궁리하다가 감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없는 돈에 밀천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한번 당기니까 돈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등치가 오더니 등을 두드리며 “손님, 좀 삼가 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꼼짝도 못하고 나와야 되지 거기서 대들다가는 얻어터진다. 기술만 있으면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돈을 잃으려고 파친코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히려 소유에 끌려서 망한다.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그룹의 부회장도 지금 돈이 많다는 이유로 불려 다니고 있다. 어지간한 회사였으면 망했을 텐데 기반이 튼튼해서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벌었지만 자기 돈이 아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병철 씨 재산이 몰수당한 때가 있었다. 대구 역뒤쪽에 있던 제일모직 땅을 나라에 바쳐서 제일모직의 지분이 국가 소유가 더 많다. 그때 이병철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일정한 재산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 일정한 재산 이상은 사회 것이라는 말이다.

소유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소유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정복당한다. 오히려 소유에 눌러서 사람 꼴이 안되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거기다 짐을 더 지워 놓으면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남이 볼 때는 비까번쩍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더 편하다. 너무 많으면 편히 잠도 못잔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더구나 소유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에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겠는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셨다.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셨다. 그것은 돈이 있다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렸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렸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존재는 상실하고 소유는 많아졌다. 자기에게 걸맞지 않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은 크고 소유는 적다. 그러니 가벼울 것 아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분은 존재는 확실한데 소유는 없다. 그래서 편한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존재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유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맨몸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하면 20Kg이 넘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야 한다. 맨몸으로 걸으면 쉬운데 짊어지고 걸어야 하니 더 힘이 든다.

우리 집안의 큰처남이 제2하사관학교에 교장으로 가게 되었다. 7년간 대령으로 있다가 마지막 기회에 별을 달기 전에 임관부터 먼저 한 셈이다. 부임하고 그 겨울에 완전군장을 하고 도하훈련을 하다가 앞의 사람이 빠졌고 그 뒤에 일곱 명이 연속으로 빠져서 다 죽었다. 처남은 가까스로 올라간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군장을 안했으면 안죽었을 텐데 완전군장을 했으니 물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로

처남은 화병이 나서 오래 못살고 세상을 떠났다. 최고령 고참 대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와서 교장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짐을 지고는 강을 건너기 어렵다. 맨몸이면 물에 빠져도 헤엄을 칠 수 있는데 무거우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안된다.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가볍게 수영복만 입는다. 짐을 지고는 수영을 못한다.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문명이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편리하고 좋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존재가 상실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존재가 없는데 다른 것이 커 버리니까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 문명과 문화가 감당이 안된다. 앞으로는 인간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에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와 문명에 휘말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능력은 한없이 발전하고 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연구하는 사람들 자신도 얼마나 발전할지 잘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발전이 안됐다. 사람과 문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문명만 발전해 버렸으니 어찌 되겠는가.

내 몸은 내 생명만큼이라야 되지 내 생명보다 몸이 더 커 버리면 안된다. 생명보다 몸이 더 커 버린 것이 비만이다. 60Kg라야 되는데 80Kg이면 20Kg을 더 가진 것이다. 그러면 병이 된다. 조금 모자라면 괜찮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병이 걸리게 된다.

인간은 똑같은데 문화와 문명은 정지시킬 수 없다. 냉장고 하나를 사서 10년을 써도 기계는 멀쩡한데 연식이 오래 되고 구형이 되어서 바꿔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와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인격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위험하고 구닥다리가 되는 것이다. 지구는 같은데 기온은 변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가 타 버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타고 있다. 어떻게 산에서 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후 변화가 생겨서 산불이 발생하여 지금도 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수만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아직도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견잡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를 상실하고 나니까 무거운 짐이 생겨 버렸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게 되었다. “나는 김 아무개입니다.”라는 말밖에 못하게 되었다. ‘김 아무개’는 내가 아니다.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가 없기 때

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나무 뒤에 숨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소유가 없으면 표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허탈해져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체성이니 내가 무엇을 많이 만든다고 정체성이 생기겠는가.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정체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이니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정체성을 찾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를 찾아 주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 계급장도 내가 아니고 지식도 내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다. 그들은 자기를 찾으려고 평생을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다. 자기를 찾는 쉬운 길이 있다. 대구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최소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나를 찾는가를 모르면 대구교회에 나와도 아무 재미가 없다. 다른 교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우리는 40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없어서 재미있게 해 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알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니까, 자기가 알아지니까 저절로 재미있어진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를 잃어 버렸다. 그래서 뭔가를 취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했다. 평생을 취하고 수천 년을 취했다. 그것이 문명이 되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취해 놓은 것이 문명이 된 것이다. 참 좋은 것이 문명이다. 그런데 ‘나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이 안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없다.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지만 다윗은 그것이 몸에 맞지 않는다며 벗어 버렸던 것이다. 왕이 준 것이니 죽어도 입고 싸우겠다고 할 텐데 다윗은 평소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 다윗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양 치던 사람이니 임금이 아니다. 사울만큼 장대한 장군이 아니라 목동에 불과하다.’



라고 알았으니까 물맷들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한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다.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되지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는다. 고려의 신숭겸 장군은 왕의 옷을 입고 대신 죽었지만 전쟁에 나가면서 왕의 갑옷을 입으면 온 화살을 다 받을 텐데 살겠는가.

골리앗은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비웃고 있다가 당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라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며 나오니 얼마나 가소로웠겠는가.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혀서 죽고 말았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취해도 다 짐이 되고 만다.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 방에 있던 책들을 다 거실로 치워 버렸다. 책이 많으면 공기를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약하니까 책도 꽃아 놓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몸이 약하니까 이 조그만 방에서 나 혼자 살기도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데 책을 잔뜩 꽃아 놓았으니 어찌 되겠는가. 책에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바깥으로 치워 버렸다. 생각해 보니 내 평생에 그 책을 볼 일이 없다. 숨쉬기도 바쁘는데 언제 그놈들하고 같이 살겠는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못하니까 헛것을 만들어 놓고 헛배가 불러 있는 것이다. 헛배가 부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진짜 좋은 것을 먹고 배부르면 좋는데 먹지 못할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견딜 수 없다. 많이 먹으면 답답하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 모양이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같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가 취한 짐에 눌러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소나 돼지를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말이다. 내 안에는 사자의 모습도 있고 늑대의 모습도 있다. 이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야 되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는 내 성질을 못참아. 나는 못참는 사람이야.’ 하며 늑대의 모습이 되면 안된다. 한번 성질을 못이겨서 늑대의 모습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늑대로 본다. 그렇게 되면 처세에도 불리하다. 뒤에 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번 본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다. 술 한 잔 먹고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런 사진이 찍혀 버린다. ‘저것은 늑대야 늑대. 저것은

호랑이야. 언제 물릴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 하고 피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오산학교에 있을 때 일이라고 한다. 그때는 나이 많은 학생이 많아서 교내 스트라이크가 잦았다. 학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교무실로 침입해서 선생을 때리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일을 안보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때 왜 말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느냐고 물으니깐 안보려고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 학생을 보면 ‘저놈이 그때 각목 들고 왔던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아예 안보려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러 불구경 하듯이 보고 나서 평생 속에 가지고 있으려면 차라리 안보는 것이 낫다. 안보면 모르니까 안보는 것이 낫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스려야 한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은가.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으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불교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라고 한다. 이 말을 안하는 데는 없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자기를 다스리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가?

사람은 빗나가서, 제자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일이 없다. 내일 후회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밤낮 구속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앉았는데 속아서, 자기를 잃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를 잃어 버려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기를 찾아야 한다. 자기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서툴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를 다스리게 된다. 1미터쯤 되는 도량은 누구나 건너갈 수 있지만 3미터쯤 되는 도량을 보고 뿔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그런 짓은 안한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면 뛰어들어간다.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정체성이 없으니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될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예수 안에 와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어 있다. 왜 여기서는 윤리적인 이야기는 안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해도 소용이 없다.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윤리를 가르친다고 되겠는가. 개를 보고 “요즘 사료값이 비싸니까 풀을 먹고 살아라.” 하며 가르친다고 개가 풀을 먹겠는가. 개는 사료를 먹고 소는 풀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구속은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이다.

스님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참선을 하는 것은 자기를 찾으려는 것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이것이 불교의 길이다. 왜 ‘이 뭐꼬’라는 화두를 내는 것인가? 자기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다. 불교 방송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를 찾는 일을 말한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아주 쉽게 찾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개가 개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겠는가. 개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도 저렇구나.’라고 알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개를 보고 “네가 왜 개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면 부끄럽고 불쾌하겠지만 “예수 안에 봐라. 네가 있다. 하나님 아들 안에 네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말인가. 얼마나 신사적인가. “네가 인간이냐?”라는 것보다 “예수 안에 누가 있는가 봐라.” 이것이 더 쉽지 않은가! 거기서 나를 보면 쉽다. 어렵게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도, 화엄경을 하는 사람도, 천수경을 하는 사람도 내용은 다 같다. 불교는 아주 간단하다.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수만 알면 되니까 아주 쉽다.

내가 나를 찾아서 예수 이상 되겠는가? 수양을 해서 예수님 이상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의 약속들은 말할 것도 없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는 끝없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다. 그것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런즉 머리 좋은 체하지 말고 똑똑한 체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보다 낫겠는가.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것은 기독교 이천 년 사에도 없던 일이다. 다 그분을 본받으라고만 했지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없다.

본받으라고 했지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겠는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 안된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본받겠는가. 그분과 하나되는 자리, 그분과 동일시 되는 이 좋은 자리가 있다. 우리와 같이 흠에 속한 사람, 땅에 불과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나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자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가지고 좋다고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분 안에서 발견된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너무 좋으니까 남이 무시해도 상관없다. 너무 귀하고 참된 것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금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좋은 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이 사람이 새사람이다.